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일본 대지진과 중국 경제 및 무역

-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이 중국 경제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.
 - 일본에 진출한 중국 기업이 많지 않고 공장을 가진 중국 기업 대부분이 도쿄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은 없음.
 - 일본은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지만 연관된 상당수의 일본 기업이 피해지역에는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수입이 중국 내수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수입상품 대체도 가능해 지진이 중국의 대일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한시적일 것임.
 - 중국의 대일본 수출은 해상운수, 항구 등 인프라 시설의 피해로 단기적 악영향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지리적·산업구조상의 상호 보완성으로 인해 점차 안정화 될 것임.
 -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중국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임.
-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지진으로 인해 중국의 대일본 수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일본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됨.
 - 중국은 하이테크 제품 및 설비를 일본으로부터 대량 수입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제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중국 내 제품 생산 감소는 물론 일부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.
 - 일본 기업이 대거 진출하고 있는 다롄(大連)을 포함한 랴오닝(遼寧)성 등 일본과 교역이 활발했던 일부 지역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.
- 한편, 이번 대지진이 중국 기업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하여 반사적인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.
 - 중국은 세계 최대의 건축자재 및 철강 생산국이며 이번 대지진의 복구 사업이 본격화되면 중국산 건축자재 및 철강 수요가 급증할 것임.
 - 일본 LCD 패널 및 모듈 공장의 생산 중단과 운송 차질이 장기화 될 경우 중국 내 관련 공장이 일본을 대신하여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.

(일본 대지진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시적, 상해증권보, 3/15)